



홍천세무서 세정협의회 성금 기탁 홍천세무서 세정협의회(위원장: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는 24일 홍천군청을 찾아 노승락 군수에게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으로 400만원을 기탁했다.

도업체 올림픽공사 참여율 저조

강원도내 건설업체가 대형SOC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건설 기술을 개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이 24일 배포한 '대형 SOC사업의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계올림픽 관련 대부분의 공사는 사업수행능력(PQ)으로 발주되며 지

원주국토청 발주 접근도로 10~30% 불과

차별화된 강원도형 기술·소재 개발 급선무

역 건설업체 참여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경기장 시설의 경우 49%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적용됐지만 원주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 6호선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은 10-30%에 불과했다.

평창 무이~장평 구간의 경우, 외지업체가 100% 참여하고 있다.

지역 업체의 저조한 공사 참여율은 건설기술 능력 때문으로 강원발전연구원은 분석했다.

이 때문에 지역업체가 대형 SOC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건설

기술 개발을 주문했다.

또 강원도의 지형과 기후적 특성을 살린 기술 개발과 함께 현무암 등 도전 약산업과 연계, 신소재를 활용한 재료 개발도 강조했다.

강원발전연구원 김범수 연구위원은 "도내 건설업의 산업별 기여도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도내 업체가 대형SOC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건설기술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홍천세무서 세정협의회, 성금 기탁 홍천세무서 세정협의회(위원장 오인철)는 24일 오전 홍천군청을 방문, 노승락 군수에게 희망 2016나눔캠페인 성금 400만원을 기탁했다.